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변 상 희

202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

지도교수 김 성 봉

변 상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변상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정 환	
위 원	최 보 영	
위 원	김 성 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년 8월

<국문초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

변 상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학문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문제 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대상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통계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이 첫 게재된 199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390편의 논문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

법, 통계방법 분석 준거에 따라 시계열 빈도분석과 연구결과 간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대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성격 및 적응 연구 177편(45%)이며 성과연구가 108편(28%), 진로 및 적성연구 45편(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연구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상담 연구 영역이 성격 및 적응 연구 등 특정 주제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은 연구대상이 없는 논문 4편을 제외한 386편 중 100편(25%)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이어 중등 60편(15%), 고등 55편(14%), 성인 46편(11%), 대학생 37편(9%) 순이다. 연구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일 연구대상에서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방법은 전체 390편 중 370편(95%)이 양적연구로 확연히 집중된 반면 질적연구는 18편(4%), 혼합연구는 2편(1%)에 그쳤다. 양적연구는 매해 90%를 넘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질적연구가 소폭 늘었지만 2018년 최대 5편이 게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예 선택되지 않거나 한 해 1~2편 정도만 게재됐다.

넷째, 통계방법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학전공이 증설된 초반에는 프로그램 효과를 보기 위한 사전-사후 t검증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후 변인 간 상관 및 인과 관계를 보기 위한 상관분석 및 회귀 분석 방법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4년 이후에는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다변인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통계방법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의 다양성과 통계방법의 변화는 상담현장에서 실제 과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상담학은 실제를 바탕으로 한 연구이므로 보다 더 확대된 시선의 창의적 연구 노력이 앞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주요어 : 연구동향, 학문적 정체성, 성장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6
1. 국제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6
2. 한국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7
3. 상담관련 학위논문 연구동향	11
III. 연구방법	13
1. 연구대상	13
2. 평정자 및 평정절차	14
3. 평정도구 및 분류기준	14
가. 연구주제	14
나. 연구대상	16
다. 연구방법	18
라. 통계방법	18
4. 연구동향 분석 틀	19
5. 자료 분석 방법	20
IV. 연구결과	21

1. 연도별 분석대상 논문	21
2. 연구주제	23
3. 연구대상	28
가. 연도별 연구대상	28
나.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제	31
4. 연구방법	33
5. 통계방법	35
V. 요약 및 제언	38
1. 요약	38
2. 제언	39
참고문헌	40
Abstract	43
부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목록 95~20.8> ..	46

표 목 차

표Ⅱ-1 상담심리학 연구에 사용된 분석준거	9
표Ⅱ-2 상담심리학 연구에 사용된 세부 분류기준	10
표Ⅱ-3 상담관련 학위논문 연구동향 선행 연구에 사용된 분류 기준	12
표Ⅲ-1 연도별 분석대상 논문	13
표Ⅲ-2 연구주제 분류기준	15
표Ⅲ-3 연구대상 분류기준	17
표Ⅲ-4 연구방법 분류기준	18
표Ⅲ-5 통계방법 분류기준	19
표Ⅲ-6 본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틀	20
표Ⅳ-1 연도별 연구주제 분석결과	26
표Ⅳ-2 성격 및 적응 연구의 연구범주별 비중	27
표Ⅳ-3 연도별 연구대상	30
표Ⅳ-4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제	32
표Ⅳ-5 연도별 연구방법 분석결과	34
표Ⅳ-6 연도별 양적통계분석	37

그림 목 차

그림IV-1 연도별 제주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게재논문 수	2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문의 연구동향을 살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성찰함과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Brown(1969)은 일찍이 “각 학문은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 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이 곧 30년 역사를 맞이함을 고려할 때, 그간 성장한 자취를 돌아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필수적 과제이기도 하다.

상담심리학 연구동향을 다룬 연구들의 출발점은 현장의 실제에서 출발한 상담을 보다 체계화하고 학문적 차별성을 공고히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박경애, 백지은, 2017). 특히 현장과 맞닿은 상담심리학의 학문적 독특성은 상담현장을 담은 양적·질적인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하고 있기에 이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현장과 연구가 서로를 얼마나 자극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담실제와 상담연구가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상담학에서는 이를 위해 상담분야의 중요 출판물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경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방법을 써왔다. Brown(1969)은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PGJ)과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JCD)에 1962~1968년까지 수록된 모든 논문의 주제를 분석했다. Munley(1974)도 1962~1974년까지 JCP에 발표된 논문들을 내용 분석했고, Buboltz, Jr, Miller & Williams(1999)는 심리학의 학문적 자기성찰 활동의 하나로 미국의 대표적인 학회지인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에 26년간 게재된 연구물을 내용 분석했다.

이외에도 Wrenn(1962), Schmidt와 Pepinsky(1963), Harker(1989) 등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자의 소속기관,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 연구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했다. 1950년대 시작된 미국 상담심리학의 학문적 발전에는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의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상담학이 성장하면서 상담분야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물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상담심리학 역사에 비해 짧지만 날로 상담 수요가 늘고 있고 전문가 양성이 활발해지면서 상담학 연구에 대한 분석과 검토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상담학 연구동향을 살핀 연구에서는 상담연구의 주제를 분석하거나(윤엽자, 1985; 이장호, 1985) 연구방법을 분석하고(이재경, 2001; 최은영, 1995), 집단상담과(김계현, 1994; 문선모, 1981; 윤정륜, 1986) 프로그램 종류가 분석되기도(설기문, 1988) 했다. 또 국내학술지의 연구주제를(김계현, 이재규, 심운정, 2001) 분석하거나, 집단상담(문선모, 1981), 진로상담(조향, 2009), 다문화상담(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09) 등 특정 분야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수행됐다.

유명 학술지에 게재된 상담심리학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방법, 변인선정, 연구대상, 측정도구, 실험설계, 연구유형, 통계처리 등이 분석 또는 개관되기도 했다. 한국심리학회지의 창간호부터 11권까지(1988~1999) 게재된 논문과 상담관련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대상을 비교분석(이동혁, 유성경, 2000) 했고, 조성호(2003)는 한국심리학회지에 15년간 수록된 총 238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내용, 사용도구, 피험자, 통계분석방법, 참고문헌 등을 분석하기도 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분석은 곧 해당 학문이 어떤 이론적, 실제적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역할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들은 학문의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김계현(1994)의 연구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상담심리학 연구동향을 다룬 연구들은 연구내용 및 주제와 그 연도별 변화를 관찰함으로써(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운주, 김춘경, 2011; 변창진, 1995; 서지효, 2008; 이재경, 2001; 이종국, 2003; 조성호, 2003; 차희수, 2006; 최은영, 1996) 상담심리학의 양적·질적 성장을 설명해 왔다(박경애, 백지은, 2017).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운주, 김춘경(2011)은 우리나라의 상담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서며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경향 분석 시도는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역사적 기록으로 기능하는 연구물들은 현재까지 이어져온 연구흐름을 살피는 것은 물론 향

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나침반으로서도 기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의 상담학 연구도 마찬가지다. 1950년대 전후로 성장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상담학에 발맞춰 각 대학의 상담관련 학과가 늘었고 상담 전공 대학원생 수도 급속히 늘고 있다(이동혁, 유성경, 2000). 관련 서적과 연구물도 따라 해마다 쏟아지고 있고 그와 함께 연구물에 대한 분석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K대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강지운, 2015), 초등상담 연구동향 분석(조영표, 2017) 등 여러 석사학위 논문들이 상담학 석·박사, 학술지 등을 연구대상으로 저마다의 초점을 정해 상담학 연구동향을 살피는 이유다.

다른 전공에서도 학문적 경향을 살피기 위해 학위, 학술 논문 등을 모두 분석한 사례가 적지 않다. 논문 분석은 곧 연구와 실체가 서로를 얼마나 자극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이며,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교육대학원이 현직 종사자의 재교육 또는 전문가 양성과 실천적 연구를 위한 특수대학원임을 고려할 때, 상담심리전공 석사 졸업생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곧 지역의 상담을 주도하게 될 상담자들의 양적·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이들의 연구를 돌아본다는 것은 곧 우리의 현재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연혁에 따르면 상담심리전공은 1992년 9월 증설돼 2020년 8월 기준 총 390명의 석사학위 졸업생을 배출했다. 첫 졸업생은 단 2명이었지만 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 이후로는 매해 졸업생이 약 20명을 넘나들고 있다. 졸업생이 늘어나는 만큼 제주대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논문이 어떤 동향을 나타내는지, 석사학위 논문이 하나의 지표로 연구된다면 지역의 상담심리 연구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문제의식이 반영된 학문적 경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 30년 역사를 앞둔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은, 그간 축적된 석사학위 논문의 단순한 분석을 떠나 학문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곧 현재의 우리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첫 석사학위 졸업생이 배출된 199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총 390편 논문을 중심으로 무엇을 연구주제로 삼고, 누구를 연구대상으로 정하여, 어떤 연구방법을 택했으며, 통계방법은 무엇을 적용했는지를 분석해 학문적 연구경향과 그 특징을 짚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제주대 상담심리전공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고민을 이어가고 시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 논의점을 던지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문제 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대상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통계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논문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연구주제 또는 가설의 적절성과 중요성, 연구과정의 타당성 등 개별 논문들의 전반적 질적 평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둘째, 특정 주제 또는 세부 사항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본 연구는 논문의 주요 구성요소인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통계방법에 초점을 둔 총체적 분석에 한정한다.

셋째, 논문 분류의 한계이다. 지도교수와 박사학위 소지자와 논의를 통해 논문 분류기준에 대해 합의과정을 거쳤으나 평정단계에서 직접 논문을 분류하는 작업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또 논문을 분류할 때 일부 영역에 대하여 중첩된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연구의 편의상 하나의 범주로만 분류하여 연구자에 따라 달리 평정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1950년대 미국 심리학회에서(APA) 상담심리학이 제 17분과로 인정받고 상담심리학 채널이 1954년에 발간되는 등 상담심리학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상담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Wrenn(1956)은 상담이론 및 상담에 관한 각종 발표와 주요 매체가 되어 온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를 대상으로 1954년부터 1956년까지 발표된 논문주제를 분석했다. Schmidt와 Pepinsky(1963)는 JCP에 1963년도에 발표된 논문의 연구변인을 분석했다.

Brown(1969)은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PGJ)과 Journal of counselling and Development(JCD)에 1962년부터 1974년까지 수록된 모든 논문의 주제를 분석하기도 했다. Mounley(1974)는 1962년부터 1974년까지 JCP에 발표된 여러 논문들의 내용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Harmon과 Harker(1989)는 1969년부터 1984년까지 PGJ에 발표된 특집 주제와 1984년부터 1987년까지 JCD에 발표된 특집 주제를 분석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상담심리학 관련 주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상담심리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사례가 많다(조성호, 2003).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JCP의 출판 경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Foreman, 1966; Goodstein, 1963; Heestacker, Heppner, & Rogers, 1982; Hill, Nutt, & Jackson, 1994).

김계현(1994)은 미국의 상담심리학의 적용분야가 1)진로발달, 진로선택, 직업적응 등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와 2)불안, 우울 등의 정서문제, 성격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다루는 분야로 발전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1)의료영역에서 상담심리학의 적용 2) 교육상담 3)약물사용 4)성인기의 생활변화를 다루는 분야에 새롭게 적용되어 왔다고 했다. 그리고 상담방법의 최근 경향으로는 1)이론의 수렴현상으

로 절충입장을 취하고 2)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부각시킨 이론을 수용 3)상담기간의 단기화로 상담을 통해 치료 혹은 문제해결에 이르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김계현(1994)은 미국의 상담과정과 성과연구의 최근 경향을 1)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에 주목하는 연구 2)단순상관분석보다는 연계 분석에 의한 연구 3)상담 중의 주요 사건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연구 방법은 1)모의상담 연구의 실제보다는 실제 상담의 연구 2)사례연구 3)가설을 검증하는 설명적 연구보다는 발견지향 혹은 탐색 연구 4)질적연구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2. 한국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국내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을 살핀 대표 연구로는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를 분석한 이동혁과 유성경(2000), 김계현(2001), 김경성(2003), 조성호(2003), 이종국(2003),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성철(2010),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2011) 등이 있다.

이동혁과 유성경(2000)은 한국심리학회지 창간호부터 11권까지 (1988~1999) 게재된 논문과 상담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주제와 연구대상을 분석했다. 조성호(2003)는 한국심리학회지 창간호에서 15권까지(1988~2003)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내용, 사용도구, 피험자, 통계분석 방법 등 종합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동혁과 유성경(2000), 조성호는(2003) 미국심리학회지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에 1973~1998년까지 수록된 2,027편의 논문을 분석한 Buboltz, Miller, Williams(1999)가 개발한 분류 유목을 국내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유목을 제외 또는 재편성해 연구내용을 분류했다.

김계현(2001)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석사학위 논문 중 집단상담에 관한 연구로 확인된 25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했고, 분석준거로는 연구자의 특성, 내

담자의 특성, 연구 실제의 분류, 집단회기와 집단시간의 특성, 집단원 수의 특성, 종속변인의 특성, 집단의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연구결과의 특성을 사용했다.

김경성(2003)은 상담 연구방법을 실험연구, 도구개발, 조사연구, 문헌연구, 사례 연구, 메타분석으로 분류해 그 빈도를 기록했다.

이종국(2003)은 Schmidt와 Pepinsky(1963), Brown(1969), Munley(1974), 설기문(1968), 변창진(1995)의 분류 준거를 참고해 연구주제, 피험자연령, 피험자 크기, 측정도구, 프로그램 유형 및 개발절차, 프로그램 실시방법 등을 분석했다.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성철(2010)은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238편의 논문을 연구내용, 사용도구, 피험자, 통계분석 방법, 참고문헌에 따라 분석했다.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운주, 김춘경(2011)은 한국상담학회의 학회지 상담학 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과 최근 10년간 발간된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 주요 특징에 초점을 두고 비교분석했다.

이처럼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분석준거는 각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 연구의 분석준거를 종합하면 표Ⅱ-1과 같고, 세부 분류기준은 표Ⅱ-2와 같다. 상담학 연구동향을 살피는 데는 대체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측정도구, 연구대상 등이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 상담심리학 연구에 사용된 분석준거

연구자	분석영역	세부항목
조성호 (2003)	연구내용	성과, 과정, 과정/성과, 상담자, 상담서비스, 성격/적응, 진로/적성, 검사 개발, 연구방법론, 개관, 이론개발, 사례/조사
	사용도구	논문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수, 형식, 심리측정 정보 제시형태, 채점 및 점수해석 정보 제시 여부
	피험자	피험자 수, 성별, 연령에 관한 사항
	통계분석방법	변량분석계열 분석, 회귀분석계열 분석, 요인분석, 군집 분석, 판별함수분석, 다변인간 인과관계 분석, 비모수적 분석
	참고문헌	논문에서 인용된 국내외 참고문헌들의 수, 국내외 참고문헌들의 평균 발간 연도 등을 계산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성철 (2010)	연구자소속	국내대학교, 상담기관, 연구소, 일반상담소, 기타
	연구주제	성과, 과정, 과정/성과, 상담자, 상담서비스, 성격/적응, 진로/적성, 검사도구개발, 연구방법, 개관, 이론개발, 사례/조사, 다문화, 기타
	연구대상	유아, 아동, 청소년(중·고등), 대학생, 성인, 가족, 외국인, 기타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질적 혼합연구
	통계분석	양적 연구 변량분석계열 분석, 회귀분석계열 분석, 요인분석, 군집 분석, 판별함수분석, 다변인간 인과관계 분석, 비모수적 분석, 기타 질적 연구 현상학적 분석, 근거이론적 분석, 문화기술지분석, 사례 분석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연구자소속	국내대학교, 상담기관, 연구소, 일반상담소, 석·박사학위 논문, 기타
	연구주제	성과, 과정, 과정/성과, 상담자, 상담서비스, 성격/적응, 진로/적성, 학업성취, 척도개발, 개관, 이론개발
	연구대상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부부가족, 외국인, 다문화, 소수집단, 장애,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내담자, 기타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 외 3가지
	통계방법	양적 연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판별분석, 요인분석, 변량분석,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 비모수 분석, 기타 질적 연구 현상학적 분석, 근거이론적 분석, 합의적 분석, 문화기술지분석, 사회분석, 기타

표 II-2 상담심리학 연구에 사용된 세부 분류 기준

연구자	분석준거
이동혁·유성경(2000)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 대상 간 관계
김계현(2001)	연구자의 특성, 내담자의 특성, 연구 실제의 분류, 집단회기와 집단시간의 특성, 집단원 수의 특성, 종속변인의 특성, 집단의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연구결과의 특성
김경성(2003)	실험연구, 도구개발, 조사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메타분석
조성호(2003)	연구내용, 측정도구, 피험자, 통계분석방법, 참고문헌 관련 기록사항
이종국(2003)	연구주제, 피험자연령, 피험자 크기, 측정도구, 프로그램 유형 및 개발절차, 프로그램 실시방법
조남정·최은미 ·최희진·장성철(2010)	연구내용, 사용도구, 피험자, 통계분석방법, 참고문헌
김계원·정종진 ·권희영·이윤주 ·김춘경(2011)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3. 상담관련 학위논문 연구동향

상담관련 학위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이재경(2001), 차희수(2006) 등의 연구가 있다. 이재경(2001)은 1984~1998년 사이 상담과 관련된 교육학 박사 학위 논문 134편을 연구유형, 표집의 크기, 피험자 특성, 측정도구, 주제 영역으로 분석했다. 차희수(2006)는 2001~2005년까지 전국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관련 380편의 논문을 연구방법, 연구주제, 피험자, 측정도구, 통계방법, 프로그램 구성 준거 게재여부, 학교 현장과의 적용성에 따라 분석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Ⅱ-3과 같다.

본 연구는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의 준거 틀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분석 준거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통계방법 등을 각각의 세부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표 II-3 상담관련 학위논문 연구동향 선행 연구에 사용된 분류 기준

연구자	분석영역	세부항목
	연구유형	이론연구, 조사 및 설문 연구, 실험연구
	표집크기	표집대상으로 삼은 표본의 수
이재경 (2011)	피험자특성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성인, 부모-학생, 정서장애아, 신체장애아, 비행장애아, 교원, 상담자
	측정도구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 분석
	주제영역	피험자 변인, 맥락 변인
	연구방법	실험연구, 도구개발, 조사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연구주제	종속변인 분류
	피험자	피험자규모, 연령, 특성
	측정도구	측정도구 속성제시, 측정도구 채점 방식 및 점수 해석 방식
차희수 (2006)	통계방법	t검증, 일원변량분산분석, 다원변량분산분석, 다변량분석, 공변량분산분석, 상관-회귀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교차분석, 기타
	프로그램 구성준거	프로그램 구성준거를 제시했는가의 여부
	학교 현장과의 적용성	적용가능성의 높고 낮음으로 표시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으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총 390편의 전체 논문이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은 1995년 2월에 처음으로 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3편의 석사학위논문이 나왔으며, 2002년을 기점으로 매해 10편~22편의 논문이 나오고 있다. 분석대상인 논문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졸업생 명단을 바탕으로 제주대학교 도서관 학위논문 실내 자료와 RISS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도별 세부 분석대상 논문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도별 분석대상 논문

연도	논문(%)	연도	논문(%)
1995	3(1)	2008	13(3)
1996	6(2)	2009	11(3)
1997	6(2)	2010	20(5)
1998	8(2)	2011	20(5)
1999	17(4)	2012	20(5)
2000	11(3)	2013	19(5)
2001	9(2)	2014	22(5)
2002	22(5)	2015	17(4)
2003	15(4)	2016	22(6)
2004	13(3)	2017	18(5)
2005	18(5)	2018	18(5)
2006	15(4)	2019	21(5)
2007	11(3)	2020	15(4)
계		390(100)	

2. 평정자 및 평정절차

평정자로는 본 연구자 외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이 참가하였다. 평정절차는 선행 연구에서 적용한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분류기준을 근거로 평정 기준 작성, 평정자 훈련, 평정 실시, 결과 분석의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운주, 김춘, 2011).

세부 절차로 연구자가 평정자에게 재구성한 분류기준을 근거로 한 평정 기준을 설명하고, 평정자는 각 분류기준을 숙지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무작위 선택하여 평정연습을 하였다. 이후 같은 논문에 대해 함께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검토를 실시하였다.

3. 평정도구 및 분류 기준

가. 연구주제

연구주제를 분류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Buboltz, Miller와 Williams(1999), 이동혁·유성경(2000), 조성호(2003), 차희수(2006), 조항(2009), 조남정·최은미·최희진·장성철(2010), 조영표(2017) 등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제주대학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분석에 불필요한 도구개발, 이론개관, 연구방법론, 이론개발연구 등의 유목들을 제외하고 과정과 성과 및 과정으로 분리된 유목은 성과 및 과정으로 합쳐 총 8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 분류한 8가지 연구주제는 1) 성과연구, 2) 성과 및 과정연구, 3) 상담자 훈련 및 슈퍼비전 연구, 4)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 연구, 5) 성격 및 적응 연구, 6) 진로 및 적성 연구, 7) 학업 연구, 8)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로 분류하였으며, 5) 성격 및 적응 연구에서는 박경애, 백지은(2017)에서 사용한 분석 기준을 토대로 세부적인 분석 기준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분류된 주제별 세부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주제 분류기준

연구주제	세부내용		
①성과연구	상담이나 특정한 개입절차에 의한 효과나 성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내담자의 최종적 변화와 프로그램 개발의 효과검증을 모두 포함한 연구		
②성과 및 과정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해 상담과정과 성과를 함께 연계시키는 연구. 상담 과정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담고 있는 연구		
③상담자 훈련 및 수퍼비전 연구	상담자 훈련, 개인 및 집단 수퍼비전, 상담자 발달 및 상담자 특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연구		
④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 연구	상담이나 정신건강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이나 지각 또는 태도와 신념에 관한 연구		
⑤성격 및 적응 연구	개인 및 가족이나 조직, 일반인들의 성격 및 심리특성, 태도, 의견, 가치, 스트레스, 적응 등에 관한 연구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적응	상황적 특성	외상, 애착 관계 갈등, 가족 갈등, 장애, 발달단계
		결과적 특성	중독, 자살/자해
	특질	정서조절능력	우울, 분노 표현
			관계 갈등
		역기능적 사고	기타
			불안
	성격	이상섭식행동	
		기타	
성격구성요소이해			
		증상 반응 양식	
		다른 특질 간 관계	
⑥진로 및 적성 연구	진로발달, 진로탐색, 진로선택,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진로 및 적성에 관련된 검사나 평가도구 개발 및 효과 검증 등 다양한 연구를 포함한 연구		
⑦학업연구	학습문제, 학업성취, 학습태도 등 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포함한 연구		
⑧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단일 및 사례에 대한 집중 연구나 문헌 등 조사 자료를 제시한 연구		

나. 연구대상

연구대상을 분류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인 변창진(1995a), Buboltz 외 (1999), 이동혁, 유성경(2000), 조성호(2003)가 제시한 범주를 참고하여 발달단계 별, 내담자 특성 등에 따라 나누고 연구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총 20개 범주로 나눴다. 구체적 연구대상 분류기준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연구대상 분류기준

연구대상 분석영역	세부내용
①아동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②초등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③중등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④고등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⑤청소년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14~19세 이하인 청소년
⑥대학생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
⑦교사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지식, 기능을 매개하는 직업인
⑧부모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관계의 성인 또는 한 부모를 포함
⑨상담자	상담자 수련생, 상담전문가, 상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⑩장애인	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모든 사람
⑪성인	성년기에 속하는 일반적인 사람
⑫노인	노년기에 속하는 일반적인 사람
*이하 분류기준(⑬~⑳)은 위 분류기준 중 상담심리전공 논문에서 주요 대상으로 둘 이상 적용된 연구대상을 하나의 범주로 포함한 기준들임.	
⑬초등/중등	주요 연구대상이 둘 이상으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함
⑭초등/중등/고등	주요 연구대상이 둘 이상으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함
⑮초등/학부모	주요 연구대상이 둘 이상으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포함함
⑯초등/학부모/교사	주요 연구대상이 둘 이상으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 교사를 포함함
⑰중등/고등	주요 연구대상이 둘 이상으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함
⑱중등/교사	주요 연구대상이 둘 이상으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교사를 포함함
⑲청소년/성인	주요 연구대상이 둘 이상으로 14~19세 이하인 청소년과 성년기에 속하는 일반적인 사람을 포함함
⑳청소년/학부모/교사	주요 연구대상이 둘 이상으로 14~19세 이하인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를 포함함

다. 연구방법

연구방법 분류기준은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2009), 김경성(2003) 상담연구방법론의 분류를 참고하여 자료의 성격에 따라 크게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의 3개 범주로 구분했고 표 III-4와 같다. 양적연구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등 계량적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한 연구들을 포함했다. 질적연구는 현상학적연구, 근거이론적연구, 문헌연구, 사례분석 등을 포함했으며 양적 통계분석과 질적 연구가 함께 이뤄진 연구는 혼합연구로 분류했다.

표 III-4 연구방법 분류기준

연구방법	세부기준
양적연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판별분석, 요인분석, 변량분석,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 비모수분석
질적연구	참여관찰, 내용분석, 질적분석, 사례분석, 현상학적연구, 근거이론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	양적연구+질적연구

라. 통계방법

각 논문에 적용된 통계분석 방법의 유형을 확인하여 성태제(2017),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2009), 조성호(2003)의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t검증(t검증, f검증), 분산분석(일원변량, 다원변량, 다변량, 공변량), 상관·회귀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 교차분석으로 분류했다. 현상학적 분석, 근거이론적, 문화기술지, 사례분석 등은 질적분석으로, 양적 통계분석방법과 질적 분석을 함께 사용한 경우는 혼합분석으로 각각 분류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III-5와 같다.

표 III-5 통계방법 분류기준

통계방법	내용
t검증	집단 간 평균점수차이로 가설을 검증한 경우
분산분석	두 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경우
상관·회귀분석	두 변수 간 상관 정도를 분석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
빈도분석	집단 간 빈도차를 검증한 경우
요인분석	많은 요인 중 소수의 특정 요인을 만들어 분석한 경우
다변인간 인과분석	다 변인간 경로, 매개, 조절 등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경우
교차분석	두 변수의 빈도 표를 교차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경우
질적분석	현상학적, 근거이론적, 문화기술지, 사례분석, 참여관찰, 내용분석 등 질적분석을 한 경우
혼합분석	양적 통계분석방법과 질적분석을 함께 사용한 경우

4. 연구동향 분석 틀

본 연구에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통계방법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분류 기준을 종합하여 구성한 본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틀은 표 III-6과 같다.

표 III-6 본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틀

구분	세부항목
연구주제	성과, 성과 및 과정, 상담사, 상담인식, 성격 및 적응, 진로, 학업, 사례 *성격 및 적응 적응(상황적 특성, 결과적 특성) 특질(정서조절능력, 역기능적 사고, 성격)
연구대상	아동, 초등, 중등, 고등, 청소년, 대학생, 교사, 부모, 상담자, 장애인, 성인, 노인, 초등/중등, 초등/중등/고등, 초등/학부모, 초등/학부모/교사, 중등/고등, 청소년/성인, 청소년/학부모/교사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통계방법	t검증, 분산분석, 상관·회귀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다변인간인과관계, 교차분석, 질적분석, 혼합분석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 학위 논문 390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기준에 따라 Number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통계방법에 따른 분류 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제 분류 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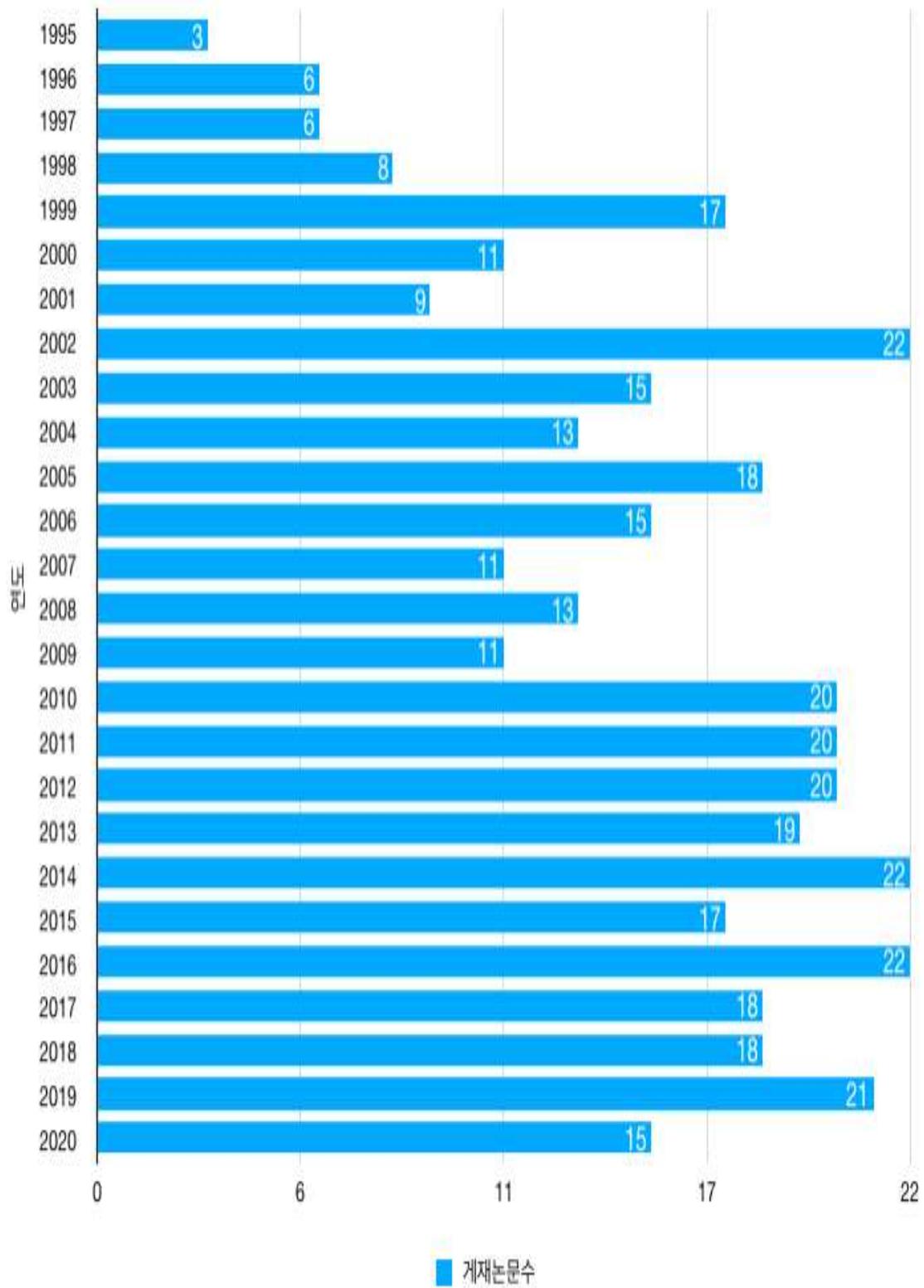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연도별 분석대상 논문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은 총 390편이 게재됐다. 이를 연도별로 분류한 결과는 그림 IV-1과 같다. 1995~1998년 사이 10편 미만과 2001년 9편을 제외하고 연간 게재된 논문의 수는 두 자리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2020년 15건은 같은 해 8월까지의 논문만 포함함) 게재된 논문이 최하 17편에서 최고 22편 사이를 유지함으로써 상담심리전공 신설 초기와 비교해 논문 수가 크게 늘어났다.

논문의 수가 증가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 기준이 석사학위가 필수 조건이 되면서 이는 석사학위 졸업생 증가와 그에 따른 논문 수의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제 19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란 조항에 근거하여 2005년도부터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시작되었고, 07년도부터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확대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전문상담교사 임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IV-1 연도별 제주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게재논문 수



2. 연구주제

연도에 따른 연구주제 분석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율로 연구된 주제는 성격 및 적응 연구로 총 177편, 그 비율은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과연구 108편, 28%, 진로 및 적성 연구 45편, 12%를 차지했고 그 외 연구주제(성과 및 과정, 상담자, 상담인식, 학업, 사례)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 연구는 전체 3편으로 1%를 차지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담연구방법론 및 상담 연구 동향에 대한 주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 연구논문이 발표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성과연구가 꾸준히 이어졌고, 1997년 1편으로 시작된 성격 및 적응 연구는 점차 그 숫자가 늘다가 2008년과 2009년 1편씩 줄어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도별 연구주제 선택 비율에서 30%이상 차지했다.

특히 2015년 71% 비율을 차지한 이후에는 2016년 68%, 2017년 61%, 2018년 44%, 2019년 62%, 2020년 60%로 이어져 상담전공 석사학위 논문이 초기보다 더욱 성격 및 적응 연구 주제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성호(2003) 연구에서 성격 및 적응연구 21.8%, 성과 연구 14.3%, 개관 연구 10.5%, 진로 및 적성 연구 10.1% 순으로 나타났던 것과 조남정 외(2010) 연구에서 성격 및 적응 연구 29.1%, 성과 연구 18.6%, 진로 및 적성 연구 12.1%, 검사도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9.3%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김계원 외(2001)의 연구에서도 성격 및 적응 연구 36.8%, 척도개발연구 13.0%, 성과연구 10.7% 순으로 나타나 연구주제가 성격 및 적응 연구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이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한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연구자 다수가 학교 현장에 근무를 하거나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음으로 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성과 측정 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의 논문 주제로 진로연구와 학업연구도 기타 다른

연구에 비해 꾸준히 연구주제로 선택되고 있는 편이다. 1998년을 시작으로 진로연구가 연구주제로 선택된 뒤 2001년까지 잠시 주춤하다가 2008년 이후로는 한 해 1~5편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업연구도 한 두 해 건너뛰더라도 연이어 게재된 논문들이 있으며 한 해 연구주제로 선택되는 비율에서는 진로연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이는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대상이 초등·중등·고등 학령기에 집중된 점과 연결 지어 볼 때 진로와 학업이 중요한 과제인 연구대상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논문에서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나는 주제 중 검사도구 및 척도 개발 연구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연구 주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주제였다. 그 외 성과 및 과정연구, 상담자연구 상담인식연구, 사례연구는 일정한 흐름이 보이지 않을 만큼 2년 또는 5년 동안 연구주제로 선택되지 않고 있다. 사례연구는 2016년 1편에 이어 2017년 2편, 2018년 3편, 2019년 1편으로 연이어 게재되고 있어 이후 연구들이 이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주목해볼 만 하다. 이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의 상담학 연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연구가 미흡한 영역인 검사도구 및 척도 개발, 상담자 훈련 및 슈퍼비전 연구,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 사례연구, 연구 방법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제주대학교 상담전공 전체 석사학위 논문 390편 중 총 177편, 45% 비율을 차지한 주제인 성격 및 적응 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분석결과 전체 177편의 성격 및 적응 연구 중 발달단계 또는 갈등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과정,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인 적응과 관련된 논문은 총 115편이며(65%), 적응과정에서 반응특성을 결정짓는 개인적 특질이나 그에 수반되는 증상인 특질과 관련된 논문은 62편(35%)로 분류되었다.

적응과 관련된 변인 중 상황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애착/관계 갈등 61편(34%), 가족갈등 18편(10%), 발달단계 12편(7)%, 외상 5편(3%), 장애 3편(2%)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중독 16편(9%)이 나타났다. 그리고 특질과 관련된 변인 중 정서조절능력 50편(29%), 역기능적 사고 6편(3%), 성격 6편(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경애, 백지은(2017)에서 적응과 관련한 논문 69편(58%), 특질과 관련된 논문 50편(42%)과 일치하고 소범주에서는 외상 20편

(17%), 애착/관계 갈등 16편(13%), 중독 9편(7%), 우울/분노 등 정서표현 9편(7%) 순으로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학위논문 연구 주제 중 성격 및 적응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성격 및 적응 연구 안에서도 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것은 ‘교육학과’란 학과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이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정범모, 1925)라 했을 때, 상담을 통해 적응을 높이고, 성숙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것이다. 이에 연구 대상자의 현재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결과적 특성이나 적응 과정에서 반응 특성을 결정짓는 개인적 특질보다는 문제시 되는 적응 경험을 유발하는 특정 상황, 즉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적 변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적응에 대한 결과적 특성(중독)이나 적응과정에서 특질(정서조절능력, 역기능적 사고, 성격 구조)과 관련된 연구 주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실제 전문상담인력을 투입하고, 지역 사회 내 병원과 센터를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도 증가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우울과 불안감, 중독, 자살/자해 등의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들의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이 부적응을 증상을 유발하는 변인 및 특질까지 넓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적응뿐만 아니라 부적응을 유발하는 심리적인 문제,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교육학과에서의 연구 주제로도 이미 다뤄지고 있으며, 점점 더 넓혀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1 연도별 연구주제 분석결과

연도	합계(%)	연구주제							
		성과	성과과정	상담자	상담인식	성격적응	진로	학업	사례
95'	3(100)	2(67)	1(33)						
96'	6(100)	4(67)			1(17)			1(17)	
97'	6(100)	3(50)			1(17)	1(17)			1(17)
98'	8(100)	4(50)				2(25)	2(25)		
99'	17(100)	1(6)	1(6)	1(6)		12(71)		2(12)	
00'	11(100)	5(45)				6(55)			
01'	9(100)	2(22)				4(44)	1(11)	2(22)	
02'	22(100)	10(45)				11(50)	1(5)		
03'	15(100)	6(40)				6(40)	1(7)	2(13)	
04'	13(100)	3(23)				5(38)	1(8)	2(15)	2(15)
05'	18(100)	5(28)	1(6)			6(33)	2(11)	4(22)	
06'	15(100)	8(53)				5(33)		2(13)	
07'	11(100)	1(9)				7(64)	2(18)	1(9)	
08'	13(100)	7(54)		1(8)	1(8)	1(8)	3(23)		
09'	11(100)	7(64)	1(9)			1(9)	1(9)	1(9)	
10'	20(100)	8(40)				8(40)	3(15)		1(5)
11'	20(100)	2(10)		1(5)		7(35)	5(25)	4(20)	1(5)
12'	20(100)	7(35)				7(35)	3(15)	3(15)	
13'	19(100)	8(42)				7(37)	3(16)	1(5)	
14'	22(100)	8(36)				13(59)	1(5)		
15'	17(100)					12(71)	4(24)	1(6)	
16'	22(100)	2(9)		1(5)		15(68)	1(5)	2(9)	1(5)
17'	18(100)	1(6)		1(6)		11(61)	3(17)		2(11)
18'	18(100)			1(6)		8(44)	4(22)	2(11)	3(17)
19'	21(100)	4(19)				13(62)	1(5)	2(10)	1(5)
20'	15(100)			1(7)		9(60)	3(20)	2(13)	
총계	390(100)	108(28)	4(1)	7(2)	3(1)	177(45)	45(12)	34(9)	12(3)

표 IV-2 성격 및 적응 연구의 연구범주별 비중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편수(%)		
적응	상황적 특성	문제시되는 적응경험을 유발하는 특정상황에 초점	외상 애착/관계 갈등 가족갈등 장애 발달단계(노화, 출산, 결혼)	5(3) 61(34) 18(10) 3(2) 12(7)	
		소계		99(56)	
		결과적 특성	부적응적 정서, 인지, 행동	중독 자살/자해	16(9) 0
			소계		16(9)
			소계		115(65)
	특질	정서조절능력	증상: 우울/분노 등 정서표현		10(6)
			증상: 관계갈등		30(17)
			기타		10(5)
			소계		50(29)
		역기능적 사고	완벽주의, 내면화된 수치심, 침투적 사고 등	불안 이상섭식행동 기타	5(3) 0 1(1)
소계				6(3)	
성격			수치심	성격 구성요소 이해	5(3)
			경향성, 내현적 자기애, 자아 탄력성 등	증상/반응 양식 다른 특질 간 관계	1(1) 0
		소계		6(6)	
소계			62(35)		
총계			177(100)		

3. 연구대상

가. 연도별 연구대상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중 문헌연구인 논문 3편과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한 논문 1편을 제외한 386편의 논문 중 연도별로 연구대상을 분류 유목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연구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0편(25%)으로 가장 많고, 중등 60편(15%), 고등 55편(14%), 성인 46편(11%), 대학생 37편(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이 둘 이상 중복된 경우는 표 IV-3의 ⑬초등/중등부터 ⑳청소년/학부모/교사까지 분류로 나타났다.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2편(1%)으로 단일 연구대상 중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IV-3의 연도별 연구대상 분석결과 흐름을 살펴보면 1995~2006년까지는 ①아동 ②초등 ③중등 ④고등 ⑤청소년 ⑥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이 집중된 반면 2006~2017년까지는 점차 초등·중등·고등에 집중됐던 현상이 ⑦교사 ⑧부모 ⑩성인 등으로도 널리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대상이 초등학생 등 학령기에 집중된 것은 전국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차희수(2006)와 일치하나 학회지를 분석한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2009)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학회지를 분석한 김계원 외(2009)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37%), 청소년(20.2%), 상담자(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계원 외(2009)는 연구자(60.7%)가 대학교에 소속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본 논문과 차희수(2006)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초·중·고 학령기에 집중된 것은 연구자 소속이 연구대상 선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연도별 연구대상 분석결과 흐름을 살펴보면 1995~2006년까지는 학령기 아동 및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이 집중된 반면 2006~2017년까지는 교사, 부모, 성인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담학이 1990년대 초기 시작점이었고, 2000년대 이후 상담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상담 수요를 연구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음을 반영할 때,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에도 이 같은 경향이 반영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연도별 연구대상 분석결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의 연구대상 선정은 연구자의 관심과 소속기관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대학원이란 대학원 특성 상 현직교사들의 재교육 및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보니 연구자들이 대부분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소속된 곳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다만 2006년 이후부터 노인, 여성,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연구자들의 소속과 관심대상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상담학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추이 변화는 박경애, 백지은(2017)이 2012~2016년 상담심리학 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대상 변화로 기존 학생 중심의 연구편향을 다소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일치한다. 더불어 연구대상 중 상담자 및 상담교사는 내담자인 학생들의 정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상담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표 IV-3 연도별 연구대상

합계 (%)	아동	초등	중등	고등	청년	대학생	교사	부모	상담자	장애인	성인	노인	초등/중등	초등/중등/고등	중/학부모	중/학부모/교사	중등/교사	중등/교사	청년/성인	청년/학부모/교사
95'	3 (100)	1 (33.3)		1 (33.3)	1 (33.3)															
96'	6 (100)		2 (33)	1(17)	2 (33)				1 (17)											
97'	5 (100)		3 (60)		1 (20)													1 (20)		
98'	8 (100)	1 (13)	3 (38)		2 (23)	1 (13)					1 (13)									
99'	17 (100)		7 (40)	1 (6)	2 (12)				(12)		2 (12)		1 (6)	1 (6)	1 (6)					
00'	11 (100)		7 (64)	1 (9)	1 (9)				(9)										1 (9)	
01'	9 (100)		4 (45)		3 (33)													2 (22)		
02'	22 (100)		15	1	2				2		1							1		
03'	15 (100)		7 (49)	3 (20)	2 (13)						1 (6)	1(6)						1(6)		
04'	12 (100)		2 (17)	2 (17)	3 (25)						1 (8)							2 (17)		1 (8) 1 (8)
05'	18 (100)		10 (58)	2 (11)	1 (5)	2 (11)	1 (5)					1 (5)						1 (5)		
06'	15 (100)	2(13)	5 (33)	2 (13)							3 (20)	1 (7)						1 (7)		
07'	11 (100)		2 (18)	2 (18)	2 (18)	1 (9.3)	1 (9.3)				2 (18)							1 (9.3)		
08'	13 (100)		7 (57)		2 (15)						1 (7)	1 (7)							1 (7)	
09'	11 (100)		1 (9)	2 (18)		4 (37)					1 (9)	2 (18)							1 (9)	
10'	20 (100)	1 (5)	3 (15)		2 (10)	1 (5)	2 (10)	2 (10)	1 (5)		1 (5)	4 (20)	1 (5)					2 (10)		
11'	20 (100)	1 (5)	4 (20)	3 (15)	4 (20)	2 (10)	2 (10)				1 (5)	2 (10)							1 (5)	
12'	20 (100)		5 (25)	4 (20)	2 (10)	1 (5)	2 (10)	1 (5)			1 (5)	2 (10)	1 (5)	1(5)						
13'	19 (100)		3 (15)	3 (15)	3 (15)	2 (11)	2 (11)	1 (6)				3 (15)	1 (6)						1 (6)	
14'	22 (100)		4 (18)	4 (18)	5 (24)	1 (4)	3 (14)					3 (14)	1 (4)						1 (4)	
15'	17 (100)		1 (6)	4 (23)		1 (6)	2 (12)		2 (12)		1 (6)	6 (35)								
16'	22 (100)		1 (4)	5 (24)	2 (9)		4 (18)	2 (9)	3 (14)	1 (4)		2 (9)	2 (9)							
17'	17 (100)			4 (23)	2 (12)	1 (6)	5 (39)		1 (6)			3 (18)							1 (6)	
18'	17 (100)		3 (18)	4 (23)	5 (29)		2 (12)					3 (18)								
19'	21 (100)			8 (39)	4 (19)		2 (9)	3 (14)				4 (19)								
20'	15 (100)		1 (6)	3 (20)	2 (13)		4 (30)	2 (13)		1 (6)		1 (6)	1 (6)							
총계 (%)	386 (100)	6 (2)	100 (25)	60 (15)	55 (14)	17 (4)	37 (9)	13 (3)	8 (2)	2 (1)	5 (1)	46 (11)	11 (3)	2 (1)	9 (2)	4 (1)	1 (1)	7 (2)	1 (1)	1 (1)

*1997, 2004, 2017, 2018 년도에는 각 1건씩 문헌연구 등을 제외했다.

나.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제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제 분석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에서 전체 연구 대상별 연구 주제는 성격 및 적응연구가 177편으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주제는 성과연구가 50편(50%), 성격 및 적응 연구가 32편(32%), 학업 12편(12%), 진로 5편(5%) 순이었으며,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주제는 성격 및 적응 연구 23편(38%), 성과연구 14편(24%), 학업 12편(20%), 진로 11편(18%)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주제는 성격 및 적응 연구 22편(40%), 성과 연구 16편(29%), 진로 10편(18%), 학업 7편(13%) 순이다.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주제는 성격 및 적응 연구 24편(52%), 성과 연구 9편(20%), 사례 6편(12%)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이 초·중·고 학령기에 집중된 것은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적응, 또래 관계 적응과 성격 및 적응(외상, 애착, 가족갈등, 장애, 중독, 우울, 불안, 성격 구성요소 등)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과연구는 상담이나 특정한 개입절차에 의한 효과나 성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내담자의 최종적 변화와 프로그램 개발의 효과검증을 포함한 영역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연구 방법 안에서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등의 경험적 연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 등 효과검증을 밝히는 연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로와 학업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가 분포되어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연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제는 각 발달단계 별로 성취해야할 발달과업 변인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제는 학령기 아동 및 대학생들에 비해 연구주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성격 및 적응 연구와 성과 연구 외에 사례연구에서 대상자로 선택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제를 살펴봤을 때, 연구대상과 연구주제는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각 발달 단계에 따라 성취해야할 발달과업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초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주제에서는 양육태도에 따른 학교 적응,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는 반면, 중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주제에서는 또래관계, 자아정체감, 진로와 관련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다. 즉, 연구대상별 다뤄지는 중요한 변인들의 차이는 대상별 발달과업의 차이와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주제								합계
	성과	성과과 정	상담자	상담인식	성격적 응	진로	학업	사례	
아동	2 (3)	1 (1)			3 (3)				6 (100)
초등	5 (5)				3 (3)	5 (5)	12 (12)	1 (1)	10 (100)
중등	14 (14)				3 (3)	11 (11)	12 (12)		60 (100)
고등	16 (16)				2 (2)	10 (10)	7 (7)		55 (100)
청소년	6 (6)	1 (1)			6 (6)	4 (4)			17 (100)
대학생	3 (3)		1 (1)	1 (1)	2 (2)	12 (12)			37 (100)
교사	1 (1)				12 (12)				13 (100)
부모	3 (3)				5 (5)				8 (100)
상담자			1 (1)				1 (1)		2 (100)
장애인	1 (1)				3 (3)		1 (1)		5 (100)
성인	9 (9)	2 (2)	3 (3)		24 (24)	3 (3)	6 (6)		48 (100)
노인	1 (1)	1 (1)			8 (8)		1 (1)		11 (100)
초등/중등					2 (2)				2 (100)
초등/중등/고등					8 (8)		1 (1)		9 (100)
초등/학부모	1 (1)				3 (3)				4 (100)
초등/학부모/교사				1 (1)					1 (100)
중등/고등	1 (1)				4 (4)		2 (2)		7 (100)
중등/교사				1 (1)					1 (100)
청소년/성인					1 (1)				1 (100)
청소년/학부모/교사					1 (1)				1 (100)
합계(%)	108	4	5	3	177	45	34	10	386

*1997, 2004, 2017, 2018 년 각 1편씩 문헌연구 논문 수를 제외한 386편을 연구주제와 교차분석했다.

4. 연구방법

연도에 따른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양적조사와 실험연구 등을 합한 양적연구가 전체 390편(100%) 중 370편(95%), 사례, 현상학, 문헌연구를 포함한 질적연구가 18편(4%),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혼합된 혼합연구는 2편(1%)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은 2015년 이후 질적연구가 소폭 늘었으나 매해 90%가 넘는 비율로 양적연구가 선택돼 연구방법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2011)과 박경애, 백지은(2017), 차희수(2006)가 대부분의 상담학회지 게재논문과 학위논문이 양적 연구방법에 치중돼 있다고 분석한 것과 일치한다.

연도별 연구방법 분석결과를 보면, 총 26년간 양적연구가 연구방법으로 100% 선택된 해는 15년 동안이며, 이는 곧 양적연구 이외 질적연구 및 혼합연구가 연구방법으로 15년간 선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질적연구는 1997년 처음 게재된 이후 2004년 1편이 게재되기 전까지 6년간 선택되지 않았으며 2004년 이후에도 2010년 들어서야 다시 질적 연구가 연구방법으로 선택됐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2016년 들어 질적연구가 3편(2016년), 4편(2017년), 5편(2018년), 1편(2019년)으로 연이어 1편 이상씩 게재됐다는 점이다. 전체 질적연구가 18편인데 총 26년의 기간 중 4년 동안 전체 질적연구의 72%가 집중됐다.

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제갈원(2012)은 2000년도까지는 양적연구의 폭발성장시기인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질적연구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반영할 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질적연구가 2010년 중반 이후 게재논문수가 늘고 비교적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질적연구에 대한 상담학 연구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IV-5 연도별 연구방법 분석결과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합계(%)
1995	3(100)			3(100)
1996	6(100)			6(100)
1997	5(83)	1(17)		6(100)
1998	8(100)			8(100)
1999	17(100)			17(100)
2000	10(91)		1(9)	11(100)
2001	9(100)			9(100)
2002	22(100)			22(100)
2003	15(100)			15(100)
2004	12(92)	1(8)		13(100)
2005	18(100)			18(100)
2006	15(100)			15(100)
2007	11(100)			11(100)
2008	13(100)			13(100)
2009	11(100)			11(100)
2010	18(90)	1(5)	1(5)	20(100)
2011	19(95)	1(5)		20(100)
2012	19(95)	1(5)		20(100)
2013	19(100)			19(100)
2014	22(100)			22(100)
2015	17(100)			17(100)
2016	19(87)	3(13)		22(100)
2017	14(78)	4((22)		18(100)
2018	13(72)	5(28)		18(100)
2019	20(95)	1(5)		21(100)
2020	15(100)			15(100)
합계(%)	370(95)	18(4)	2(1)	390(100)

5. 통계방법

통계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t검증이 153편(39%), 분산분석이 48편(12%), 상관·회귀분석이 62편(16%), 빈도분석이 7편(2%), 요인분석이 1편(1%),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은 85편(21%), 교차분석이 16편(4%), 질적분석이 16편(4%), 혼합분석이 2편(1%)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IV-6과 같다.

연구의 대부분이 양적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9년을 제외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t검증이 평균 74% 이상 비율을 차지했다. 이후 2007년부터는 상관·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이 t검증과 비슷한 비율로 분포됐고 그 흐름과 함께 2010년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이 나타났다. 2014년에는 t검증과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이 각각 10편(45%), 7편(31%)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는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이 14편(64%)을 넘어섰고 이후 2017년 11편(60%), 2018년 13편(72%), 2019년 14편(67%), 2020년 15편(100%)으로 나타나 최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연구들의 통계방법 선택이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으로 확연히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변량 및 회귀분석 계열이 상담심리학 연구의 전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분석한 조성호(2003)와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계열이 전체의 56%를 넘고 2005년부터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 김계원·정종진·권희영·이윤주·김춘경(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주제가 성격 및 적응 연구, 성과 연구 순으로 나타나다 보니,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양적 연구, 통계 방법으로는 t검증 및 상관·회기 분석, 분산분석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양적 연구 및 통계적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제한점과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상담학 연구의 다양성과 질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질적분석 또는 혼합분석을 활용한 다양한 통계방법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통계방법에 따른 연도별 추이를 보면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이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이 연구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한글판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교육과정 중 연구방법론 내에서 통계프로그램에 대한 실습 및 통계분석에 대한 세미나가 이루어졌던 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통계분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내에서 정규교육과정 내·외에서 SPSS, AMOS, Jamovi 등을 활용한 다양한 통계분석연수 및 세미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도별 통계방법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이 과거에 비해 최근 고급통계기술이 적용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는 통계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진 부분도 있겠으나, 연구자들이 다양한 통계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용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IV-6 연도별 양적통계분석

	t검증	분산 분석	상관 회귀분석	빈도 분석	요인 분석	다변인간 인과분석	교차 분석	질적 분석	혼합 분석	합계 (%)
95'	3(100)									3(100)
96'	6(100)									6(100)
97'	4(66)		1(17)					1(17)		6(100)
98'	5(63)	3(37)								8(100)
99'	5(29)	3(18)	5(29)	1(6)	1(6)		2(12)			17(100)
00'	8(73)	1(9)	1(9)						1(9)	11(100)
01'	7(78)	1(11)					1(11)			9(100)
02'	16(73)	2(9)	2(9)				2(9)			22(100)
03'	12(79)	1(7)		1(7)			1(7)			15(100)
04'	7(54)	2(15)		1(8)			2(15)	1(8)		13(100)
05'	14(78)	4((22)								18(100)
06'	9(60)	1(7)	5(33)							15(100)
07'	5(45)	1(10)	5(45)							11(100)
08'	4(31)	2(15)	4(31)				3(23)			13(100)
09'	4(36)	4(36)	2(19)				1(9)			11(100)
10'	5(25)	9(45)	3(15)			1(5)		1(5)	1(5)	20(100)
11'	6(30)	5(25)	6(30)	1(5)			1(5)	1(5)		20(100)
12'	8(40)	1(5)	9(45)			1(5)		1(5)		20(100)
13'	9(47)	3(16)	5(27)			1(5)	1(5)			19(100)
14'	10(45)		3(4)	1(5)		7(31)	1(5)			22(100)
15'	1(6)	3(18)	5(29)			8(47)				17(100)
16'	1(4)		3(14)			14(64)	1(4)	3(14)		22(100)
17'	1(6)	1(6)	1(6)	1(6)		11(60)		3(16)		18(100)
18'				1(6)		13(72)		4((22)		18(100)
19'	3(14)	1(5)	2(9)			14(67)		1(5)		21(100)
20'						15(100)				15(100)
합계 (%)	153 (39)	48 (12)	62 (16)	7 (2)	1 (1)	85 (21)	16 (4)	16 (4)	2 (1)	390 (100)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199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에 등록된 총 39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통계방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이 2010년 이후 17편에서 최고 22편 사이를 유지함으로써 상담심리전공 신설 초기에 비교해 논문 수가 크게 늘어났음이 나타났다.

둘째,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는 성격 및 적응연구로 그 비율은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과 연구 28%, 진로 연구 12%, 학업 연구 9%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상담자 및 상담인식, 사례연구 주제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이하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인 성격 및 적응 연구로 분류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응과 관련된 논문은 65%, 특질과 관련된 논문은 35%로 나타났다. 적응과 관련된 변인 중 상황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애착/관계 갈등 61편(34%), 가족갈등 18편(10%), 발달단계 12편(7%), 외상 5편(3%), 장애 3편(2%)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중독 16편(9%)이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26%(100편)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등 16%(60편), 고등 14%(55편), 대학생 10%(37명)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나 장애인, 노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7%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주제가 성격 및 적응 연구에서 177편과 성과연구 영역에서 108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섯째, 연구방법은 양적조사와 실험연구 등을 합한 양적연구가 전체 390편(100%) 중 370편(95%), 사례, 현상학, 문헌연구를 포함한 질적연구가 18편(4%), 양적통계와 질적조사가 혼합된 혼합연구는 2편(1%)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통계방법은 실험연구 등 양적연구가 상담심리전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기술통계분석이 전체 95%를 넘고 최근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이 대부분의 통계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국내 타 대학 석·박사 학위 및 국내외 학술지를 비교 및 분석하는 상담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하지 않은 다양한 분석 기준(연구자 소속에 따른 연구경향성, 시대적 배경에 따른 연구 주제 및 변인, 종속변인과 관련된 독립 변인 및 매개, 조절 변인 등)으로 좀 더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성민(2004). **학계의 금기를 찾아서**. (주)살림출판사
- 강지운(2015). 2003-2015년 K대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최명선, 류진아, 정유진(2006). 아동상담의 연구동향: 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1997~2005). **놀이치료연구**, 9, 47-65
- 김경성(2003). 상담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초등상담연구**, 2, 21-32.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운주, 김춘경(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23, 521-542
- 김계현(1994). 상담심리학의 최근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 김계현(2006). **상담심리학 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학지사
- 김계현, 이재규, 심윤정(2001). **국내상담연구의 주제분석: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BK21iAPED 연구보고서
- 김수현(1991).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연구동향과 방법론. **현장연구방법론 각론(한국심리학회편)**, 81-113
- 김은민(2019).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1984년-2018년 2월).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효(2005). **초등교사 집단상담의 실제**. 교육과학사
- 김혜숙(1996). 상담의 최근 연구동향과 현장적용. **교육심리연구**, 10, 167-183
- 김충기, 강봉구(2001). **현대 상담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노안영(1994). 상담심리학의 최근 동향. **학생생활연구**, 26, 99-113
- 문선모(1981). 집단상담의 최근 경향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학생생활연구소보**, 7, 49-66
- 박경애, 김형수, 최한나, 박관성(2001). **상담활동의 경향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경애, 백지은(2017).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2012~2016) 분석 및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게재논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9, 893-913
- 박전춘(2004). 초등학교 상담활동에 대한 교사와 아동의 인식차이. 여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창진(1995). 상담심리의 연구 동향(1): 연구주제분석. **학생지도**, 28, 1-26
- 변창진(1995). 상담연구 동향분석(2): 연구방법. **발달상담연구**, 3, 1-37
- 변창진(1995). 상담심리의 연구 동향(3): 연구변인분석. **중등연구**, 40, 25
- 서지호(2008). 한국 [상담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태제, 시기자(2017). **연구방법론**. 학지사
- 손성곤(2002). 초등학교 상담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범(1989). 교사의 상담자로서 역할지각 및 수행과 아동의 상담에 대한 기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혁, 유성경(2000). 상담연구의 주제 및 연구대상 분석: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8권, 37-58
- 이시용(2003). **초등학교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과학사
- 이장호(1993). **상담심리학 입문**. 박영사
- 이재경(2001). 상담학의 연구동향 분석. **학생생활연구**, 14, 123-140
- 이종국(2003). 초중등 학생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경향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혁표(1989).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 전광희(2003).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상담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2003). 경기도내 초등학교에서의 상담실태 및 아동의 상담에 대한 요구 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2003).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 811-832

- 조영표(2017). 초등상담 연구동향 분석.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항(2009).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희수(2006). 국내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동향과 실태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성문, 이영숙, 박명숙, 이동훈, 함경애 (2015).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초등상담심리학회(2006). **한국형 초등학교 생활지도와 상담**. 학지사
- 최은영(1995). 상담심리학의 연구경향 분석. **발달상담연구**, 3, 161-184
- 허승희(1996).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상담**. 교육과학사
- 허승희(2002). 미국 초등학교 상담연구의 최근 동향. **초등교육연구**, 15, 515-532
- 홍종관(2002).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아동전문 생활지도와 상담에 관한 개관적 연구. **초등교육연구**, 15, 1-20
- Brown, F. G.(1969). Seven years of the journal; *A review,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8, 263-272
- Buboltz, W. C. Jr, Miller, M & Williams, D. J.(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3-1998),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4, 496-503
- Munley, P. H.(1974).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305-310
- Schmidt, L. D & Pepinsky, H. B.(1963). Counseling research in 1963,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398-401
- Wrenn, C. G.(1962). Topical analysis of 169 research and therapy articles in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 312-317

<Abstract>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a Master's
Degree in Counseling Psychology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Byeon Sang-Hui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Professor Kim Sung-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the master's degree thesis in counseling psychology at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explore academic identity. To this end, we have established a research problem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How is the research topic trend of the thesis on master's degree at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Research Question 2. What is the trend of the thesis on the master's degree at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Research Question 3. What is the trend of research methods in the thesis

on master's degree at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Research Question 4. How is the statistical method trend of the master's degree thesi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total of 390 papers were conducted from September 1995 to August 2020, when a master's thesis on counseling psychology was first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research topics,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al method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e summary of the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177 personality and adaptation studies (45%) were studied, followed by 108 performance studies (28%), and 45 career and aptitude studies (12%). All other studies appear to be less than 10%, confirming that counseling research areas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topics such as personality and adaptation studies.

Second, 100 (25%) out of 386 papers, excluding 4 papers without subjects, were targeted 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was followed by 60 middle and high schools (15 percent), 55 high schools (14 percent), 46 adults (11 percent) and 37 college students (9 percent). Except for cases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subject, the least number of studies were conducted on counselors in a single subject.

Third, 370 (95%) of the total 390 studies were concentrated on quantitative studies, while only 18 (4%) were conducted on qualitative studies and 2 (1%) on mixed studies. Quantitative research has maintained a ratio of more than 90% every year, and qualitative research has increased slightly since 2015, but only one or two were selected or published a year except for up to five in 2018.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early stages of the expansion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unseling Psychology at Jeju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pre-post-t verification method was used to see program effects. Since 2014, we have shown the flow of analyzing multidimensional causality using structural equations.

The abov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trend of research topics,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al methods in the master's degree thesis in counseling psychology at Jeju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s continued to change. In particular, the diversity of subjects and changes in statistical methods are interpreted as researchers' efforts to solve real challenges at the counseling site. Since counseling is a practical study, we hope that creative research efforts with a wider perspective will continue in the future.

Key Words: Research Trends, Academic Identity, Growth.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목록(1995~2020.8)>

번호	연구자	연도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제목
1	송미경	1995	REBT集團相談이 自我正體感에 미치는 效果
2	김홍배	1995	自己成長 集團相談이 自我概念과 人間關係에 미치는 效果
3	김이선	1995	集團相談이 텔레비전 過多 視聽兒의 態度變化에 미치는 效果
4	임소연	1996	禁煙教育프로그램이 吸煙行動 變化에 미치는 效果
5	김미형	1996	自己成長을 위한 學習 프로그램이 學業에 관한 情意的 特性에 미치는 效果
6	이춘옥	1996	相談前 期待感이 相談滿足度에 미치는 影響
7	강정실	1996	부끄러움 克服 訓練이 女高生의 自我尊重感에 미치는 效果
8	한현숙	1996	兒童의 스트레스 減少 訓練의 效果 分析
9	장경숙	1996	性教育 集團相談이 中學生의 性知識 및 態度 變化에 미치는 效果
10	정두완	1997	스트레스 對處訓練이 男高生의 不安減少에 미치는 效果
11	고은희	1997	初等學校의 相談 實態 調査 研究
12	서영준	1997	兒童이 知覺한 家族體制 類型과 不適應 行動과의 關係
13	강옥련	1997	福音書에 나타난 예수의 相談原理 考察
14	김순신	1997	父母教育 프로그램이 子女養育態度에 미치는 效果
15	오영미	1997	어머니의 養育行動이 兒童의 情緒知能에 미치는 影響
16	조철수	1998	進路集團相談이 女高生의 進路意識成熟에 미치는 效果
17	김동훈	1998	REBT集團相談이 高校生의 自我概念에 미치는 效果
18	고은화	1998	兒童의 性格類型과 進路類型과의 關係
19	양복만	1998	精神遲滯兒 어머니의 心理的 態度變化와 스트레스 對處行動 研究
20	홍미경	1998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21	이건복	1998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22	안봉선	1998	수줍음 克服 訓練이 兒童의 自己表出 增進에 미치는 效果
23	고종희	1998	性教育 集團相談이 兒童의 性知識 및 性役割 正體感에 미치는 效果
24	고행자	1999	高校生의 性情報 媒體類型과 性態度에 관한 研究
25	고인정	1999	스트레스 對應訓練이 스트레스 知覺과 對處方式에 미치는 效果

26	강인숙	1999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과 방어기제와의 관계 연구
27	장지순	1999	어머니의 養育態도와 兒童의 攻擊性 類型과의 關係
28	정매자	1999	父-母 養育態도의 差異와 子女의 情緒的 不適應 行動과의 關係
29	정순덕	1999	學生相談自願奉仕 活動의 發展 方案에 관한 研究
30	김미경	1999	兒童期 또래집단의 特性和 學校生活態度와의 關係 研究
31	김남규	1999	MMTIC 성격유형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32	김금순	1999	兒童의 情緒知能과 攻擊o非行行動간의 關係 研究
33	김현숙	1999	아동의 知覺한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과 學校適應과의 關係 研究
34	부정민	1999	사회적 요인이 청소년의 음주·흡연에 미치는 영향
35	오광훈	1999	家庭의 心理的 環境과 兒童의 自我狀態와의 關係
36	권미선	1999	Psychodrama 집단상담에서의 성장촉진요인에 관한 연구
37	송상	1999	教師가 知覺한 社會的 支持와 精神健康과의 關係
38	고은정	1999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환경 특성과 burnout에 관한 연구
39	현우택	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연구
40	김순실	1999	靑少年의 內o外 統制性과 對人關係 性向 研究
41	김은영	2000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부적응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42	김경순	2000	사랑학습 프로그램이 교제 중인 대학생의 이성관계에 미치는 효과
43	송남두	2000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44	김동준	2000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교우관계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45	홍상표	2000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방어기제와의 관계
46	양순임	2000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47	문성훈	2000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48	임창희	2000	PC방 이용 경험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49	고광우	2000	MBTI 성장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에 미치는 효과
50	강명복	2000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기대감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51	강현심	2000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52	김창련	2001	고교생의 심리적 분리-개체화에 관한 연구

53	김은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54	오경석	2001	자기 효능감 프로그램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55	김유옥	2001	부모-자녀간 성 의식 차이가 자녀의 성 지식·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56	진명성	2001	장애아 가정환경이 비장애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
57	고애순	2001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과의 관계
58	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59	조은영	2001	자기 표출 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60	강용문	2001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61	김신자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62	고형순	2002	학원과외 학습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63	이은경	200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
64	강경숙	2002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65	이봉화	2002	관계증진 집단상담이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에 미치는 효과
66	양명희	2002	사이코드라마가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67	박금주	2002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68	김미은	2002	인터넷중독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69	고수연	2002	자기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70	송여옥	2002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71	변미정	2002	심리극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72	김경순	2002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따돌림 행동에 미치는 효과
73	강미라	2002	고교생의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
74	정경애	2002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75	양순도	2002	부모의 분노상황과 자녀가 사용하는 분노감소전략과의 관계
76	리봉월	2002	한0중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연구
77	정호경	2002	진로집단상담이 아동의 진로의식에 미치는 효과
78	문태영	2002	고교생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79	김애자	2002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주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80	강재정	2002	MMTIC 성장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81	권미정	2002	놀이중심 집단상담이 고립아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82	김효선	2002	인터넷 게임 중독이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83	김경희	2003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84	김선미	2003	진로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85	송은주	2003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86	부선희	2003	아동의 MMTIC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87	김경환	2003	인지행동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인터넷게임 중독에 미치는 효과
88	이철우	2003	집단미술활동이 부적응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89	강순애	2003	자기효능감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90	김금숙	2003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91	김미숙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92	오복자	2003	뇌호흡 명상이 아동의 집중력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93	김효숙	2003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94	문은숙	2003	노인상담의 실태와 요구에 관한 연구
95	육원희	2003	인터넷게임 중독이 고교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96	이정자	2003	간호사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
97	허은순	2003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98	강혜영	2004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99	김혜경	2004	기독교·비기독교 고교생의 자아개념 비교 연구
100	정경자	2004	성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101	현지혜	2004	공무원의 자아방어기제와 직무만족 및 스트레스의 관계
102	진은설	2004	청소년수련활동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103	정혜연	2004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104	박옥희	2004	중국 연변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과 상담연구
105	부지원	2004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고교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106	송상홍	2004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107	오민숙	2004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108	양혜은	2004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기법 연구
109	오희숙	2004	진로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110	최애선	2004	중국 연변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성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111	한수정	2005	표준체중아동과 비만아동의 자아개념에 관한 비교연구
112	신찬엽	2005	MMTIC 성장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113	오정훈	2005	학습습관 형성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114	현란주	2005	학습동기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115	양민철	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자아상대와의 관계
116	김선규	2005	분노조절훈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117	최은경	2005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118	김정선	2005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119	김효주	2005	스트레스 대처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120	김영옥	2005	중학생의 진로의식실태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121	양선영	2005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122	박문숙	2005	자기표출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정 아동의 표출행동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123	방경자	2005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노인 무력감 완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124	오용선	2005	게슈탈트 집단상담이 아동의 내적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125	김지선	2005	집단놀이 프로그램이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126	임수영	2005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127	최창환	2005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
128	송미영	2005	결손가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129	현희애	2006	품성개발 프로그램이 청소년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130	고민자	2006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
131	부희옥	2006	ME프로그램이 부부의 문제해결행동, 문제해결효율성,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132	강정화	2006	현실치료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수용자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133	이정란	2006	성교육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지식과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효과
134	강나루	2006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효과
135	서정조	2006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 연구
136	송영옥	2006	주의집중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137	조연희	2006	대인관계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138	강차선	2006	부부 의사소통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39	강은주	2006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140	고운숙	2006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141	류향란	2006	결손가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142	김양선	2006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143	이금선	2006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교우관계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144	고애란	2007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중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
145	이민재	2007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이 실업계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146	손태주	2007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업적 자아개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147	김미란	2007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148	김영숙	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149	진은아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150	허지연	2007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151	현정숙	2007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52	이화련	2007	비행청소년의 구조적 결손 가정 유무와 비행 행동에 따른 성격특성 연구
153	박선희	2007	실직자의 직업성격유형과 직업상담 기대감의 관계 연구
154	강명자	2007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 및 자아분화와 부부갈등과의 관계
155	강광자	2008	대학생의 불안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156	좌은정	2008	고등학생의 직업성격유형과 직업가치관에 관한 연구
157	문재홍	2008	범죄예방위원의 상담봉사활동특성이 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158	양연심	2008	노인의 성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59	김형택	2008	상호작용놀이 집단상담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160	김경화	2008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진로성숙과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161	김효실	2008	REBT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162	최기희	2008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램이 아동의 주의력결핍에 미치는 영향
163	김소연	2008	장애이해교육프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인식 및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164	오인자	2008	학교상담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165	양미지	2008	요가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166	김영희	2008	의미치료 집단상담이 여고생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167	고혜정	2008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아동의 책임감과 내외통제성에 미치는 영향
168	오옥선	20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169	우정애	2009	해결중심원예치료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70	이성순	2009	중도장애인의 자조집단 참여활동이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171	박점심	2009	청소년 수련활동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172	장정임	2009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173	김성준	2009	오행 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174	한영숙	2009	원예요법이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
175	김형수	2009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176	강명심	200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177	고은비	2009	부부관계 유형에서 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178	박성민	2009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179	고루시아	2010	제주도 공공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조사 연구
180	김경희	2010	초등 보직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계
181	김선희	2010	중도시각장애인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182	최정호	2010	춤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

183	홍관수	2010	음악명상 프로그램이 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184	홍미선	2010	START 시각집중력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185	양선예	2010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전문계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186	오지현	2010	시간관리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시간 관리에 미치는 효과
187	오현주	201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188	강윤심	2010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189	고애정	2010	집단놀이 활동이 유아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190	고은아	2010	특수교사의 교직원과 정서적탈진감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191	김도연	2010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유형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92	김성철	2010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193	김정효	2010	부모의사소통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194	김현정	2010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195	김형희	2010	에니어그램 집단상담이 간호사들의 직장-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
196	김희숙	2010	죽음주제 '땀' 곳을 통한 노인의 경험에 대한 실험연구
197	배현정	2010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198	양순미	201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199	김진경	2011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200	김문관	2011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201	조경은	201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02	김도연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203	이만해	2011	아동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4	김상훈	2011	만다라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아동의 주의집중력과 주의집중행동에 미치는 효과
205	김세란	2011	자아탐색프로그램이 부적응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206	김희정	2011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207	문성환	2011	춤·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시험불안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208	손춘옥	2011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결혼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209	홍연희	2011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210	김중학	2011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211	신선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12	고성희	2011	정서상태와 귀인소재 조작에 따른 대학생의 열등감 변화
213	고충숙	2011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14	김근우	2011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215	이경미	2011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정서지능과 내외통제성에 미치는 영향
216	양정은	2011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217	문가은	2011	부모지지가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18	송지연	2011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219	최영란	2012	진로성숙도가 중학생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220	강경미	2012	격려 프로그램이 아동의 열등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221	김근영	2012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 및 조력에 관한 질적 연구
222	김산옥	2012	청소년기 학교스트레스와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223	현도심	2012	집단미술치료가 뇌졸중 노인의 심리재활에 미치는 효과
224	강정훈	2012	대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225	김연옥	2012	요가명상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226	김민아	2012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기수용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227	송주연	2012	활동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
228	송순화	2012	부모의 성취압력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229	이성옥	2012	담임교사의 의사소통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230	정순선	2012	사이코드라마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231	안계선	2012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232	정창훈	2012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233	김녀	2012	대학생의 정서표현갈등과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234	김근실	2012	자활참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235	김복희	2012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236	김선순	201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업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
237	서지영	2012	중학교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관계
238	성영실	2012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이 고등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239	박서현	2013	SMART시각집중력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주의집중력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240	박소연	2013	긍정심리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241	심지혜	2013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242	양경미	2013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243	양영석	2013	분노수준과 분노표현방식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244	오향심	2013	노인의 여가활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245	윤인노	2013	대학생의 도박동기와 자기통제력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246	이향주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47	이하랑	2013	집단미술치료가 중년기 여성의 자아분화와 정서적 위기감에 미치는 효과
248	임설매	2013	행복 증진 프로그램이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결혼가정 아동의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249	허봉심	2013	사회복지공무원의 긍정정서, 부정정서, 정서조절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250	허희임	2013	공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251	강은정	201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 비교
252	강제윤	2013	행복집단미술치료가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253	고희숙	2013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254	김완수	2013	진로자립프로그램이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255	김은아	2013	제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256	김은주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서표현갈등 및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257	현은정	2013	인터넷 사용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인터넷과다사용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258	강현순	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또래관계와 온라인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259	고경심	2014	고등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피임 지식의 매개효과
260	고유정	2014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261	고혜인	2014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 또래 역할에 따른 중학생의 공감, 자아분화, 가족체계의 차이
262	김선희	2014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263	서수열	2014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264	양윤정	2014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265	이성	2014	놀이중심의 자기통제 훈련 프로그램이 중국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266	이유진	2014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 및 타인 존중태도에 미치는 효과
267	좌영자	2014	에니어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268	김미정	2014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269	한광섭	2014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여자중학생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270	김난용	2014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271	강미숙	2014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이 다문화 부부의 부부이해도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272	김애경	2014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
273	김영옥	2014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274	윤금성	2014	자아성장 프로그램이 특성화고 여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275	이영순	2014	개인회상 프로그램이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276	이용	2014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
277	이재연	2014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 효과
278	홍희정	2014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특성화고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279	장영도	2014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강점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80	이미정	2015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281	이영찬	2015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282	이채영	2015	청소년동반자의 직무열의 및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283	최옥화	2015	중학생 학부모의 자아분화와 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284	하은희	2015	진로상담을 위한 명리학의 적용가능성 탐색
285	허희숙	2015	어머니의 자존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286	현지현	2015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
287	이화	201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88	이연옥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289	김영례	2015	제주도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식습관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290	김정옥	2015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
291	손영수	2015	폐경기 초로(初老)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노화와 죽음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292	양정은	2015	자기성찰이 점복에 대한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93	염영아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294	오승희	2015	의무경찰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295	윤영식	2015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296	김보경	2015	중학생의 열등감과 진로의사결정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

297	이복자	2016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298	성나미	2016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299	임수빈	2016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300	최희재	2016	특수교사의 사회적지지와 교사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301	조지연	2016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02	이경화	2016	바우처 이용을 통한 장애아 부모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303	김진우	2016	유형별 노인복지서비스가 노인의 심리적복지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304	안혜정	2016	제주도 학생상담사들의 학교상담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
305	진민주	2016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306	장우순	2016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의 차이
307	한명희	2016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308	김기남	2016	대학생의 평가염려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309	김인영	2016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310	이승미	2016	중학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311	장정은	2016	중학생의 외로움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312	고진선	2016	스마트폰 중독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성향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313	고희숙	2016	초등교사의 정서노동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314	현승환	2016	여가활동 참여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315	고명희	2016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의 치유경험
316	강갑주	2016	고등학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317	홍영순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318	김옥진	2016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
319	장현숙	2017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320	임지현	2017	대학생의 자기노출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321	박지연	2017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322	김소영	2017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323	허정선	2017	자아성장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324	문미자	2017	중학생의 도박성게임의 접근성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
325	오광식	2017	제주지역 성인문제성 도박자들의 심리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326	오종철	2017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327	박유리	2017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 국내연구 메타분석
328	박성호	2017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비교
329	이세자	2017	성인 경마장 이용객의 일상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330	김상식	2017	고등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331	이범석	2017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공감 능력 및 Cyberbullying의 구조적 관계 연구
332	김현주	2017	제주도내 대학생의 외모 만족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333	고영희	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334	김형근	2017	밀턴 에릭슨 상담과 붓다의 설법 비교
335	이헌정	2017	대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336	김영희	2017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337	김상희	2018	고등학생의 마음챙김과 스마트폰 중독경향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338	문유미	2018	중년기 경찰관의 직무만족, 사회적지지, 자아개념, 진로적응성의 구조관계 분석
339	김인숙	2018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340	원경숙	2018	중학생의 외톨이성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341	김수미	2018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342	오명애	2018	가족지지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343	김안나	2018	대학생 사회불안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344	고영복	2018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
345	김윤미	2018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346	강명숙	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347	김명숙	2018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348	윤혜진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상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349	한현주	2018	내담자의 무의식 자원을 활용한 상담 사례 연구
350	김은아	2018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이존중감과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사례연구
351	김정완	201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352	최승호	2018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353	강선미	2018	초기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교사 애착관계의 매개효과
354	백은정	2018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55	김지은	2019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이존중감의 매개효과
356	강지영	2019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357	김수정	2019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358	이희진	2019	초등교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359	박기용	2019	중학생의 시험불안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360	고정희	2019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361	박윤희	2019	위빠사나명상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마음챙김과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362	강병철	2019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363	박환희	2019	북한이탈주민 조력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364	현경립	201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365	조금자	2019	중학생의 우울과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366	박진희	2019	긍정심리프로그램이 만성 조현병 내담자의 스트레스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367	류재필	2019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학교생활만족도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368	윤지영	2019	중학생의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369	홍경희	2019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370	김순희	2019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371	장유리	2019	운전 중 의사소통 유무가 운전분노에 미치는 영향
372	박정선	2019	교육행정직공무원의 직장 내 대인관계와 직무만족도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373	진영자	2019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게임과 몰입 예방에 미치는 효과
374	양혜진	201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375	조금실	2019	제주시 중등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76	김선	2020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377	김수희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378	김영미	2020	대학생의 부모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379	김지선	2020	유아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380	백은의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381	양미연	2020	중학생이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382	이혜영	2020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383	전혜정	2020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의미의 매개효과
384	조순화	2020	고등학생의 행동활성화체계/행동억제체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385	진영립	2020	상담자의 완벽주의성향과 상담관련스트레스 관계에서 마음챙김 매개효과
386	허진선	2020	일반고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387	박순희	2020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388	김미경	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389	조복순	2020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390	염희정	202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